

# 도메인 분석(domain analysis)에 관한 이론적 고찰

## Theoretical Study on Domain Analysis

유 영 준(Yeong-Jun Yoo)\*

### 목 차

1. 서 론	3.5 세 차원의 상호작용
2. 정보관련 업무에서 주제 지식의 중요성	4. 도메인 분석과 연구 방법
3. 도메인	5. 도메인분석의 두 가지 핵심적인 관점
3.1 도메인의 정의	5.1 사회-인지적 관점
3.2 존재론적 차원	5.2 실용적 사실주의 관점
3.3 인식론적 차원	6. 결 론
3.4 사회학적 차원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도메인분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의 지식이론과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론에 일반원칙을 제시하였다. 도메인분석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도메인을 구성하는 주제지식과 그 지식을 공유하는 담론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메인의 정의를 제시하고 도메인을 존재론적, 인식론적, 사회학적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도메인분석에서 이용할 수 있는 11가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메인분석이 문헌정보학에서 가지는 함의를 사회-인지적 관점과 실용적 사실주의의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a knowledge theory, theoretical framework and general principles in methodologi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y theoretically weighing domain analysis. The central concept to domain analysis are a subject knowledge constituting the domain and a discourse communities to share their knowledge. Therefore the study described a definition of domain and explained domain in ontological, epistemological, and sociological dimensions, proposed eleven approaches available in domain analysis. And the study argued the implications of domain analysi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in position of socio-cognitive view and pragmatic realism.

키워드: 도메인 분석, 주제 지식, 연구방법론, 사회-인지적 관점, 실용적 사실주의

Domain Analysis, Subject Knowledge, Research Methodology, Socio-cognitive View, Pragmatic Realism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yp6370@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6년 2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18일

## 1. 서론

문헌정보학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을 이용하도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보와 문헌의 이용의 효율성이 문헌정보학의 외부에서 발전한 정보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큰 것이 사실이며, 이 정보기술(IT)을 다루는 학문이 컴퓨터과학이다. 이 점에서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과학은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컴퓨터과학은 이론적인 면에서 문헌정보학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헌정보학은 특수도서관학과 다큐멘테이션(special librarianship and documentation)에서 발전해 왔고(Hjørland 2004c), 문헌정보학의 전문직들은 처음에는 각자가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에서 또는 일반적인 분야에서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주제전문가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지향적인 정보활동에 근거한 이론적 틀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20세기 초중반에 주제 지식이 문헌정보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것은 문헌정보학백과사전(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 여러 도메인들에 관한 용어들이 포함된 예를 보면 알 수 있다(Hjørland 2004c). 주제 지식의 중요성은 지식의 내용과

사회적 환경(context)을 암묵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들로 인해 외면당했으며, 1975년에서 1990년까지는 문헌정보학에서 인지주의(cognitivism)<sup>1)</sup>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체계이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새로운 견해들은 문헌정보학의 이론적·개념적 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지속적인 발자취도 남기지 못한 채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헌정보학은 아쉽게도 이론적인 기반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취약한 문헌정보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 도메인 분석(domain analysis)은 계량서지학, 정보조직 및 색인, 정보검색, 정보이용과 같은 여러 하위 영역의 통합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만족할만하고 통일성 있는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문헌정보학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도메인 분석은 인지적 견해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도메인 분석을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메인분석에서 암시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지주의적 견해를 고수하려는 경향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론을 수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많은 연구들이 도메인분석과 대립하고 있는 보편주의적(universalistic)<sup>2)</sup> 가설에 근거하고 있지만, 위의 같은 주장에 의해서 오늘날

1) 인지주의는 정보조직 및 검색이나 이용자연구와 같은 문헌정보학의 영역들을 연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고의 규칙성을 어떻게 모방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행동을 중시하여,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MI)라고 일컫는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지식을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과정 또는 문화적 산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지식을 개인적인 지적 상태로 파악한다. 그리고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관점에서는 소위 문헌정보학의 지식연구라는 개념이 이러한 인지과정을 창출한 사회적 환경과 역사발전과는 분리된 인지과정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진다.

2) 보편주의는 대부분 윤리학과 종교와 연관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도메인과 관련해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조건

문헌정보학 내에서 도메인분석을 진정한 대안으로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2. 정보관련 업무에서 주제 지식(subject knowledge)의 중요성

도메인분석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부분은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도메인 지식 즉 주제 지식은 교육과 실무의 연결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주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실무에서 주제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주로 '사회과학참고정보'라든지 '자연과학참고정보' 등의 과목명으로 가르쳐지고 있지만, 실무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외국의 연구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는 자원 선정, 정보조직, 이용자검색 등 핵심적인 정보 서비스에 주제전문가들(subject specialists)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 사서들이 담당하는 기술목록부서와는 독립되어 주제색인만을 담당하는 주제목록부서를 두는 경우가 빈번하고, 주제전문가는 화학, 법, 음악 또는 심리학과 같은 특정 주제영역에서 교육을 받고, 대부분 문헌정보학에서 필요로 하는 부가적인 교육을 이수한다. 그리고 주제전문가는 특정 도메인에서 문헌을 색인할 때 필요한 도메인 지식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주제전문가들은 컴퓨터에 관한 지식은 더 배우려고 하지만, 문헌정보학 고유의 지식에

대한 필요는 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누구도 정보업무에서 주제 지식의 필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주제전문가들이 배운 것의 대부분이 정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보업무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s)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보업무와 관련해서 문헌정보학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업무에 관한 전체적인 이론적 원칙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제전문가와 정보전문가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도메인분석에서의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주제전문가들은 도서를 색인하고 정보를 검색하는 등의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전문 영역 내에서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귀납적 방식(bottom-up)으로 자신들의 경쟁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반면에 정보전문가들은 정보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연역적(top-down) 방식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전문가들은 문헌정보학의 다른 모든 영역에 관한 이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적합성의 의미, 색인의 질적 기준에 관한 지식이 여전히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문헌정보학은 주제전문가들이 토대를 구축했지만, 주제 지식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Cutter, Richardson, Sayers와 Bliss 같은 정보조직의 선구자들은 주

---

에 따른 도메인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지구조와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인지주의자의 가설과 연결된다.

제 지식의 필요를 인정했다(Hjørland 2004c). 외국에서는 다수의 주요 문헌정보학과에서 이전처럼 현재도 여전히 특정 주제영역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전체적으로 쇠퇴해 왔고, 그 결과로 문헌정보학에서 필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1975년 이후로 문헌정보학은 과학과 인문학과 같은 도메인간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더욱이 1968년에 처음 출판된 문헌정보학백과사전(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판에서는 주제 문헌 연구가 오늘날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백과사전에 실린 기사들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생물학 문헌(Biological literature)
- 상업 문헌(Business literature)
- 경제학 문헌과 연속간행물(Economics literature and periodicals)
- 지리학 문헌(Geographical literature)
- 역사 문헌(Historical literature)
- 인문학 문헌(Humanities and its literature)
- 수학 문헌(Mathematics literature)
- 의학 문헌(Medical literature)

그러나 문헌정보학백과사전 2판(2003)에서는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문헌 연구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에서 특정 학문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연구의 전문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다. 여러 도메인에 관한 일부 중요한 연구는 계량사지학 연구자들이 진행하고 있고, 특정한 도메인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러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과와 문헌정보학내에서 주제-특정적(subject-specific) 접근 방식들을 약화시키는 일반적인 경향에서 예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문헌정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메인분석에서의 기본 이론에 대답하는 보편주의적 이론체계와 그에 따른 다수의 연구들을 발전시켜왔다.

1993년경 문헌정보학에 도메인분석이 소개될 때까지, 문헌정보학영역에서 주제지식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어떤 명확한 결론과 전반적인 이론체계를 제시하지 않고, 개별 도메인마다 고유한(domain-specific) 지식의 역할에 관한 일부 경험적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제 전문가적 견해와 지식의 본질과 연계된 논쟁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함축한 토대위에서 문헌정보학과 정보전문직(profession)을 체계화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자들이 지식 도메인만을 연구하거나 또는 다른 도메인과 비교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도메인분석의 시각이다. 특정 전공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평범한 의미에서의 주제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해당 분야의 정보 자원에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보전문가는 계량사지학과 문헌정보학의 고유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주제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문헌정보학과 별개로 여러 시각에서 도메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즉 인류학, 역사, 언어학, 철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야들은 모두 메타과학(metascience) 즉 과학에 대한 과학 또는 '과학의 철학', '과학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 정보 연구를 위해서는 메타과학 내에서 독특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에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료선정, 정보검색, 분류체계의 고안, 색인 등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헌정보학이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가져야 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정보전문가들이 개별 도메인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Hjørland 2004c).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도메인에서 생산되는 문헌의 종류, 장르, 전문용어,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 정보생산자, 정보중개자, 이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러한 구성원들, 서지기관과 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시스템 내에서 연계되어 있는가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원선정, 색인, 검색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질적 기준과 이러한 적합성 기준은 이용자의 주관적인 적합성 기준이거나 또는 특정 공공도서관이 기본정책 즉 계몽, 사람들의 건강 증진의 기능 등을 수립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전문가는 도메인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도메인의 이런 구조들은 여러 하위도메인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다른 목적뿐만 아니라 도메인의 문헌을 분류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정보전문가들은 도메인의 서로 다른 속성과 서비스하는 여러 이용자 계층, 과학이나 인문학간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 "아미추어",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간의 차이와 같은 사회학적 관심 등 일상적인 삶에 관한 연구가 문헌정보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3. 도메인

#### 3.1 도메인의 정의

WordNet(2006)에 의하면 도메인은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상세한 정의와 의미는 아래와 같다.

- 1) 삶의 특정한 환경이나 방식
- 2) 규칙이나 통제가 미치는 영역; 학문 분야
- 3) 함수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독립 변수의 값들의 집합
- 4) 관심을 공유한 일단의 사람들
- 5) 관심이 있거나 커뮤니케이션하는 지식 도메인

다섯 번째 의미는 세 번째 의미와 연계되고 이러한 의미들은 인식론적이고 정보와 관련된 맥락에서 적절하다. 우리는 도메인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활용하지만, 도메인들은 실세계의 진부한 일부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실체이다.

따라서 도메인은 부정될 가능성이 항존하는 가설과 같은 것이며, 도메인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도메인을 구성하는 정보의 가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에 받아들여졌던 도메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되고, 도메인의 구분도 영속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메인의 역동성과 가변성은 자연범주화이론의 원형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원형이론에서 원형은 기본적으로 친밀성에 기초한 것으로 학습에 의해 습득하는 개념이며,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범주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김태수 2000).

그리고 Hjørland & Hartel (2003)은 도메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이론과 개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는 인간 활동의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ontological) 이론과 개념이고, 둘째는 지식과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론적(epistemological) 이론과 개념으로, 대상을 연구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론적 원칙들을 포함하며, 셋째는 대상들과 연결된 일단의 사람들에 관한 사회학적(sociological) 개념이다. 그리고 이 구성요소들은 복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관계들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으로는 과학 사실주의(scientific realism)<sup>3)</sup>와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sup>4)</sup>와 같은 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 3.2 존재론적 차원

존재론적 이론들은 실재(reality)와 그 실재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온톨로지는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의 분류체계와 유사한 조직수단으로 활용되는 온톨로지 구축과 연계된 컴퓨터과학의 두 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Soergel 1999).

그리고 Hjørland(2004c)가 도메인을 정의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존재론적 차원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도메인은 학문 영역이거나 연구 영역일 수 있으며, 정당, 종교, 상업적 거래 또는 취미로 연결된 담론<sup>5)</sup> 커뮤니티(discourse community)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학문영역을 정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식물로 식물학을, 동물로 동물학을, 정신과 행동으로 심리학을, 과거로 역사를, 신으로 신학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바로 실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이론이고, 존재론적 이론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존재론적 이론으로 도메인을 정의할 수 있으며,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인 정보와 지식을 정의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을 정의한 정영미(1997)의 『지식구조론』 1장의 내용이 이런 의미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발전은 이전에 확립된 분류체계 안으로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만은 아니

3) 실용적 사실주의(pragmatic realism)라고도 일컫는다. 이 논문의 5.2를 참조하라.

4) 사회구성주의에 의하면 지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는다. 즉 과학적 지식은 과학자들이 만든 것이지 실세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5) 사회과학에서 담론(discourse)은 제도화된 사고방식으로 간주되는 개념으로 특정 주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사회적 경계를 지칭한다. 담론들은 모든 사물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며, 담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실세계의 구조에 대한 견해와 여러 개념들간의 관계들을 반영해야 한다. 이전에는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실세계의 일부분들이 일순간에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론적 이론들은 변화하고, 새로운 학제적(interdisciplinary) 영역의 출현으로 우리의 개념구조와 사회구조들도 변화한다.

### 3.3 인식론적 차원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 원천과 한계를 다루는 철학의 하위영역이며, 과학철학은 과학과 연관된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문제들로 구성된다. 인식론적 개념들은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관한 개념들로 예를 들면, 경험주의(empiricism)<sup>6)</sup>에 따르면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 획득되고, 합리주의(rationalism)<sup>7)</sup>는 지식은 수학적 분석과 같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정한 인식론적 규범들이 다른 인식론적 규범들보다 상대적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에 더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패러다임<sup>8)</sup>들이 이러한 규범들에 어느 정도씩 영향을 미친다. 존재론적 이론들과 인식론적 이론들은

상호간에 의존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만일 과학은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연구해야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회존재론을 개인적 행동으로 한정하는 것처럼 사실을 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이한 이론적 견해나 이 견해와 연관된 관심사의 차이로 인해 특정 도메인을 다르게 정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해당 정의가 특정 견해나 관심사를 반영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도메인분석은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도메인을 분류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도메인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검토해서 이끌어낸 지식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준 높은 이용자는 그 해결책을 불만족스럽고 미숙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견해 또는 패러다임과 이들이 해당 도메인을 분류하는데 가지는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3.4 사회학적 차원

Shera(1951)가 “분류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개념의 외적 관계 즉 환경이라고 강조했다며, 나무는 식물학자에게는 유기체이고, 조경 건축

6) 경험주의는 경험의 근본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경험에 근거하고, 단어나 개념의 의미도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관찰만을 중요시하여 과학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질문들을 거부한다. 관찰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론하고 間主觀的인 통제 데이터를 선호한다.

7) 합리주의는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이성이 압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좁은 의미로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경험과 반대인 이성이라는 인식론적 이론이다.

8) 토마스 쿤(Thomas Kuhn 1962)은 과학은 지식을 지속적으로 쌓은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학(normal science)'의 국면들인 위기와 혁명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쿤은 본질적으로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신념들의 전체,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함의의 집합으로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따라서 선택, 평가와 비평을 허용하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신념을 하나로 묶어주는 최소한의 암시적 집단이 없이는 어떠한 자연의 역사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쿤에 의하면 패러다임들은 과학연구에 필수적이다. 사실상 패러다임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연구결과를 이끌고, 특정 영역을 과학으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가에게는 심미적 개체이고, 신학자에게는 신의 은총의 현시이고, 벌목업자에게는 잠재적 소득의 원천이다. 따라서 실용적인 분류는 나무의 본질(essence)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부한다.”라고 언급한 이유는 바로 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학적 개념들은 지식영역을 연구하는 일단의 사람들 즉 과학자들, 전문가들 또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개념이고, 사회학적 차원은 도메인분석에서 중심을 이루는 차원이다. 문헌정보학에서 가장 유력한 지평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본인 사고(thought) 혹은 담론 커뮤니티인 지식도메인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Hjørland 1995). 오늘날 학문영역을 전체로서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는 반면 세부전공영역은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전공영역은 학제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동일한 학문영역 내부의 세부전공영역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보다 상이한 학문영역에 속하는 세부전공영역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제적인 연구는 과정이지 상태나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에서 전공영역들과 학문영역들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학문간의 연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다학문성(multidisciplinarity)이고, 둘째는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이며, 셋째는 학문을 형성하는 수준인 학문횡단성(transdisciplinarity)이다.

학문횡단성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영역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문헌

정보학도 문학, 심리학, 사회학, 경영, 컴퓨터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학문적 영역에서 출발한 하나의 고유한 학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

### 3.5 세 차원의 상호작용

존재론적, 인식론적, 사회학적 이론과 개념들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사실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언어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이러한 개체들을 연구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으로 존재론적 개체들을 간주하지만, 오늘날에는 사실주의 철학에 반하는 이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사회조직이 주요한 결정인자이고, 과학이 존재론적 개체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만들어질 뿐이라는 사회구성주의의 견해이다. 여러 학문영역들과 다른 형태의 사회조직체들과 권력 관계들이 그들 자신의 대상을 구성한다. 이러한 입장은 인간의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reality)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사실주의자의 이론이며, 여기에는 무엇이 도메인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매우 상이하면서도 충돌하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두 견해는 사실주의와 반사실주의의 견해로서 이러한 충돌은 모든 영역에서 다소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실주의 대 반사실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사실주의의 입장은 객관적 극단에 근거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고, 반사실주의의 입장은 주관적 극단에 근거한 이론을 표방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내에서 주제 지식을 경시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과 더불어 이용자와 그들의 지식을 중시하는 경향



은 사실주의 입장에서 더욱 더 반사실주의 시각으로의 편향과 함께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더 발전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게 할 것이다.

도메인분석에서는 세 차원 모두가 중요하다. 도메인분석은 시소러스와 분류체계에서 종속 관계와 같은 존재론적 관계들을 연구하고, 도메인분석은 과학자, 전문가, 학생, 또는 어린이와 같은 일단의 사회 구성원들도 연구하며, 마지막으로 도메인분석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서 자신들을 조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식론, 패러다임, 전통과 이론들을 연구한다. Hjørland(2002b)는 과학자들의 적합성 기준은 그들의 인식론적 입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기본 개념들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메인 형성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를 더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 문헌정보학에서는 중요하다.

#### 4. 도메인 분석과 연구 방법

우리가 문헌정보학에 과학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는 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다수는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의 기본적인 연구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메인 분석은 문헌정보학에 이론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이 이론적 관점은 문헌정보학의 포괄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메인 분석은 이론과 실재를 연계시키는 접근법이고, 문헌정보학의 주요한 모든 개념들의 통일성을

증진시키며, 문헌정보학의 역사적 단계를 통해서 발전되어온 정체성을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도메인 분석은 계량서지학, 정보조직, 정보검색과 정보문해(information literacy)와 같은 여러 하위 영역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헌정보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도메인 분석은 사회의 일부 분인 지식 도메인이나 사고(thought) 및 담론 커뮤니티를 연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Hjørland(2002a)는 도메인 분석의 11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방법은 문헌 안내서 또는 주제 게이트웨이(literature guides or subject gateway)를 만드는 것이다. 문헌 안내서는 '정보자원에 대한 안내서', '참고자료에 대한 안내서', 'pathfinders', '주제 게이트웨이'로도 지칭할 수 있다. 특정 주제영역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열거하고 기술하는 출판물들로 특정 도메인 내의 문헌들에 대한 서지이지만 전형적인 주제서지와는 다르다. 그리고 안내서들은 주석을 필요로 하는 서지 기입들에 대해서 설명도 포함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용할 저작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하고 문헌과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의 바다에서 항해하려는 이용자를 도와야한다.

도메인분석과 관련해서 도메인에서의 문헌 조사, 정보이용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안내서들을 분류하고 문헌들의 종류를 구분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개별 참고문헌들의 특성을 기술하며, 가장 중요한 정보원을 선택하고, 정보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기법은 구성된다. 그러나 이 방법의 약점은 연구로서 보다는 편찬 업무로 인식된다는 것이고, 장점으로서는 상세한 수준에서 보다 오히려 도메인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들을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특수 분류 체계와 시소러스 구축이다. 분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보편 분류 체계에 관한 것이고 특정 도메인에 관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수 분류에 관한 연구를 간과하는 현상은 기존의 분류체계가 대다수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MEDLINE이나 PsycINFO는 특수 분류이지만, 문헌정보학의 방법론과는 상관없이 개발되었다. 시소러스도 주로 도메인에 특정한 어휘로 구성되고, 어휘들을 설정하는 방법론은 도메인분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주요 방법론은 분류에서 패킷 분석 기법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분류와 동물, 정신병, 화학원소, 역사시대 등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대상을 분류하는 체계 즉 특수 분류(scientific classification)는 구분해야 한다. 모든 분류의 기본 요소들은 분류체계의 이론적 합리성(theoretical commitments), 분류의 기본단위와 분류체계 내에서 이 기본단위들을 배열하는 기준이다.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분류는 구조적 조직을 반영하는 보편적 분류와 역사적 발전에 체계적으로 연계된 특수 분류로 나뉜다.

특수 분류에서는 이론적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적 개념들이 변한다. 예를 들면, 고래는 한때 어류로 분류되었지만 오늘날은 포유류로 분류된다. 따라서 분류는 과학이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 분류에서는 특수 분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무관심은 문헌정보학의 주제전문가와 분류연구자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는 면에서도 나타난다.

문헌정보학은 지금까지 보다 다양한 도메인에서는 연구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문헌정보학에서 주제도메인분류에 관한 선구적인 성과로 랑가나단의 패킷 분석을 들 수 있으며, 서지분류법 2판(Bliss 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2nd ed.)에서도 여러 주제영역을 분류하기 위한 인상적인 방법론과 연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은 합리주의 철학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 철학과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패킷 분류는 분류에 대한 경험적 토대에 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고, 역사적이고, 실용적이며, 비평적인 방법들에 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들을 수용하는 데에는 사회과학을 하나로 묶는 분류체계를 이해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또는 평가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의 발전과 인식론적 전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 분류는 문헌정보학에서 활발한 연구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컴퓨터과학에서는 온톨로지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분류에 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에서 초석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그 시각의 폭을 넓히고 보다 진지하게 연구영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문학 분야 즉 역사, 한국학, 고전문학 분야 등에서 해당 분야의 시소러스 구축과 더불어 특수 분류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지식구조를 규명하고 해당 분야의 용어들을 분류하는 특수 분류는 지금까지 문헌정보학에서 발전해 온 보편분류체계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합성형 분류체계는 분석 대상이 되는 모든 주제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패시 분석을 활용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분야를 색인하고 검색하는 영역에 관한 연구로 국내 문헌정보학에서는 활발하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사회과학, 인문학, 과학 분야 내에서 색인과 분류를 다룬 교과서들이 출판된 적이 있었고, 보편적인 색인원칙을 인문학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도 있었다. 그리고 인문학 분야의 인용색인인 A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도 출판되었다. 국내에서는 학과목의 교재들은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주제 분야를 색인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도서관과 정보전문가들이 적절한 주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헌정보학이 전문적인 학문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헌정보학에 관한 만족할만한 주제지식을 개발해야 한다. 문헌정보학의 원칙들을 전문적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문헌정보학에서의 연구를 보다 의미 있고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더불어 정보를 색인하고 검색하는 것은 항상 특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문헌정보학에서의 주류는 다른 도메인들이 문헌을 조직하고 검색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 방식을 대체로 경시해 왔다. 그리고 웹에서는

이용자들이 보다 특정한 정보를 원하는 정보 이용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도메인들의 전문적인 정보를 조직하고 검색하는 연구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연구방법은 경험적인 이용자 연구로 이용자 행태, 정보이용행태, 이용자 조사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헌안내서와 특수분류법에 비하면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ARIST(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정보요구와 이용'이라는 연구제목으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전체적인 결론은 실망스러운 것으로, 실제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희망하는 것만큼 학자들이 공식적인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Hjørland 2002a).

이용자연구의 전체적인 연구경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 연구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의 대부분은 이 연구를 이끌어 갈 적절한 이론이 부족하다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는 경험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면 미숙한 귀납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문헌정보학과 행동과학 및 인지과학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통은 정보와 이용자들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매개하는 요인들을 소홀히 해왔다. 따라서 정보라는 중요한 용어와 관련해서 일반화된 사람들만을 연구하려고 했고, 이 전통에서 문화적으로 결

정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 의미와 문헌들의 다른 목표와 가치를 제외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특정하고 기계적인 방식에서 어떤 것에 반응할 것을 기대했다.

물론 인간의 인지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며, 온라인탐색과정에서 인간의 사고과정을 연구하고 인간의 인지과정을 밝히는 다른 연구들이 문헌정보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용자가 정보에 관해서 정보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해서 경험적인 이용자 연구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정보전문가들은 정보조직과 검색에서 전문가이어야 하고 비전문가들의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자신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주로 심리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론적 혹은 철학적인 것이다. 오히려 문헌정보학에서 확립된 원칙들을 전제로 이용자의 행동을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해석학이 가지는 동일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이론을 가진 존재로 간주해야 하고, 문헌정보학의 인식론적 이론들이 이용자와 이용자의 인식과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이론들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국 이용자 연구에서는 중요한 변수인 정보를 간과해왔으며, 정보가 가지는 중요성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Bates 1987). 그러나 경험적인 이용자 연구가 적절한 이론으로 지지를 받기만 한다면 문헌정보학에서 도메인분석에 대한 중요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고, 상이한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방법은 계량서지학 연구로 비록 연구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그 활용에 많은 논쟁이 상존하지만, 유망한 연구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메인 분석에서 계량서지학 연구를 활용할 수 있고, 동시인용을 기반으로 하는 계량서지학적 지도나 학문영역의 시각화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계량서지학은 개별 문헌들간의 상세하고 사실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기법이고, 이러한 관계를 표시하는 링크들은 논문, 연구자, 연구영역, 연구방법에서 저자들의 명시적인 관계를 설명해 준다.

여기에서는 계량서지학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도를 작성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기술하려고 한다. 첫째 요인은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이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학술지 및 문헌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석 대상인 학문영역이나 도메인의 지식구조를 표현하는 학술지를 선택할 때, 실제 선택을 통해서 그 학문영역에 대한 합축적인 정의를 드러낸다. 특정 학문영역에는 항상 여러 하위영역이 존재하고 다른 영역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선택은 다른 하위영역들을 제외시키고 일부 하위영역들만을 선호하게 된다. 문헌정보학의 경우, 학술지를 선택할 때 분류에 관한 연구,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도서관 역사와 다른 많은 영역과 연계된 학술지들을 제외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둘째 요인은 지도들이 근거로 삼는 논문들을 저술한 저자들만의 인용 분석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점이다. 가장 명백한 오해 중의 하나

는 저자들이 자신들의 반론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문헌을 인용하는 부정적인 인용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인용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셋째 요인은 적용하기가 더 쉽거나 용이한 접근방법을 선택해서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헌정보학에서 중요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되고, 쉬운 이론들과 방법들만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요인은 편이성과 별개로 특정 위치와 학문에서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일부 이론들이나 저자들 더욱 인지도가 높거나 또는 다른 이론들이나 저자들과 비교해서도 인용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이론들이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만 있다면, 계량서지학적 지도들을 해석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계량서지학적 방법과는 다른 해석학적 틀을 갖는 역사적이고 인식론적인 방법으로 이 이론들의 논거는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량서지학 연구는 국내에서 단어동시출현기법과 결합하여 특정 주제 분야의 지식 구조를 밝혀서 해당 분야의 정보조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분류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역사적 연구 방법으로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이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에서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사회과학을 분류하는 연구를 하거나 듀이십진 분류법과 같은 기존의 분류 체계에서 사회과학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평가하려는 연구에서는 역사적 특성을 가지는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제도메인에 관한 일반적인 역사 연구는 용어학, 범주, 문헌, 장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의 발전에 중점을 두는 역사 연구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역사 연구는 문헌정보학에서 가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헌, 서지기관, 정보시스템, 지식과 정보 등 문헌정보학의 핵심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기계론적 특성을 갖는 비역사적인 다른 연구와 비교해서 더 심도 있고, 더 통일성 있으며, 생태학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역사적 전망과 역사적 방법이다.

이러한 역사적 연구 방법은 계량서지학 연구 방법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유영준(2003)이 문헌정보학의 지식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매년 새롭게 출현한 색인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계열 분석을 함으로써 20년 동안 문헌정보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일곱 번째 연구방법인 문헌 및 장르(genres)에 대한 연구는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s)와 정보 조직(information architecture)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개념들은 HTML 기반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문검색시스템, 단락검색시스템의 출현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며, 문헌정보학과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여덟 번째 연구방법은 인식론적·비평적인 연구로 여러 가지의 전제, 배경지식, 이론들이 모든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모든 지식영역 특히 사회과학에서 상이한 패러다임, 학파 또는 접근방식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Hjørland(2002b)에 의하면 패러다임들은 그들만의 학술지와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받

전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정보요구와 적합성 기준은 자신들의 이론적 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보시스템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정보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들과 이론들을 이러한 패러다임들이 제시하기 때문에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Saracevic(1975)이 '주제 지식 견해(subject knowledge view)'라고 언급한 내용과도 연결되어, 적합성에 대한 주제지식의 견해가 다른 모든 적합성에 대한 견해에 기초를 형성하는데 그 이유는 주제지식이 지식 커뮤니케이션에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도메인분석에서 인식론적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식이고, 연구 전통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전제들을 연구하는 영역이 바로 인식론적 연구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들은 주로 연구의 대상과 관련된 존재론적 전제들과 연계되며 더불어 지식도메인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들은 역사적 연구들과 빈번하게 결합하기도 한다. 특정한 연구방법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동일한 기본전제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른 연구자들을 인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 연구는 계량서지학 패턴을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한편 인식론적 연구들도 계량서지학적 연구에서 유익을 얻는다.

그리고 지식도메인에 대한 인식론적·비평적 연구는 도메인들의 근거와 도메인들의 지식 이론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이 연구들은 자원 선정, 정보조직 및 검색을 위한 지침과 구현가능한 정보요구와 적합성 기준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수준을 제공한다. 만일 인식론이 제외된다면, 도메

인분석에 대한 다른 모든 연구방법들이 피상적이 될 것이다.

아홉 번째 연구방법은 용어학적 연구, 특수 목적 언어(language for special purpose; LSP), 담론 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전문가들은 용어학, 의미관계와 언어학적 속성을 갖는 유사한 내용들과 연계된 문제에 언제나 익숙하다. 즉 특정 도메인에서 고유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Hjørland(2002a)는 문헌정보학에서 LSP와 데이터베이스 의미론과 연계된 전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기호와 그 의미는 주로 사회 집단이 형성한다. 즉 이러한 담론 커뮤니티는 의미체계를 발전시키고 지식을 공유하며, 사회의 다른 커뮤니티와는 공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별 커뮤니티들 사이에는 의미적 간격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커뮤니티간의 간격과 질의어와 문헌 표현간의 거리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가 다르다면 다소 상이한 구성의 특정한 문헌 유형들을 발전시키고 문헌들의 모든 요소들은 정보검색에서 주제접근점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접근점이 정보로서 갖는 가치는 특정 도메인이나 전통에서 사용된 관습적 규약과 연계된다. 셋째, 항상 다양한 인식론적 규범과 변화가 위에서 기술한 지식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도메인들이 기호체계, 매체, 지식, 의미와 의미적 간격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넷째, 문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할 때, 이전 문맥에서의 함축적 의미를 상실하고, 통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함축적 정보의 손실도 크다. 그리고 정보조직·정보검색 시스템은 암시적 정보를 명시적으로 만듦으로써 함축적 정보의 손실에 대처하도록 발전해

야 한다.

열 번째 연구방법은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문헌 구조와 서지기관에 관한 연구로 UNISIST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ientific Information System) 모형이 핵심요소이다. UNISIST 모형은 1971년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국제학술연합회의(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ICSU)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수정되고 갱신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정보검색과 정보조직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식 도메인들과 도메인들간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들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인터넷, 즉 전자우편이나 리스트 서브, 유즈넷 뉴스, 전자회의 등에 의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저널, 인쇄전 자료, 회색문헌 등에 의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것으로 최초의 모형이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수정 및 갱신이 더 진전된 분석과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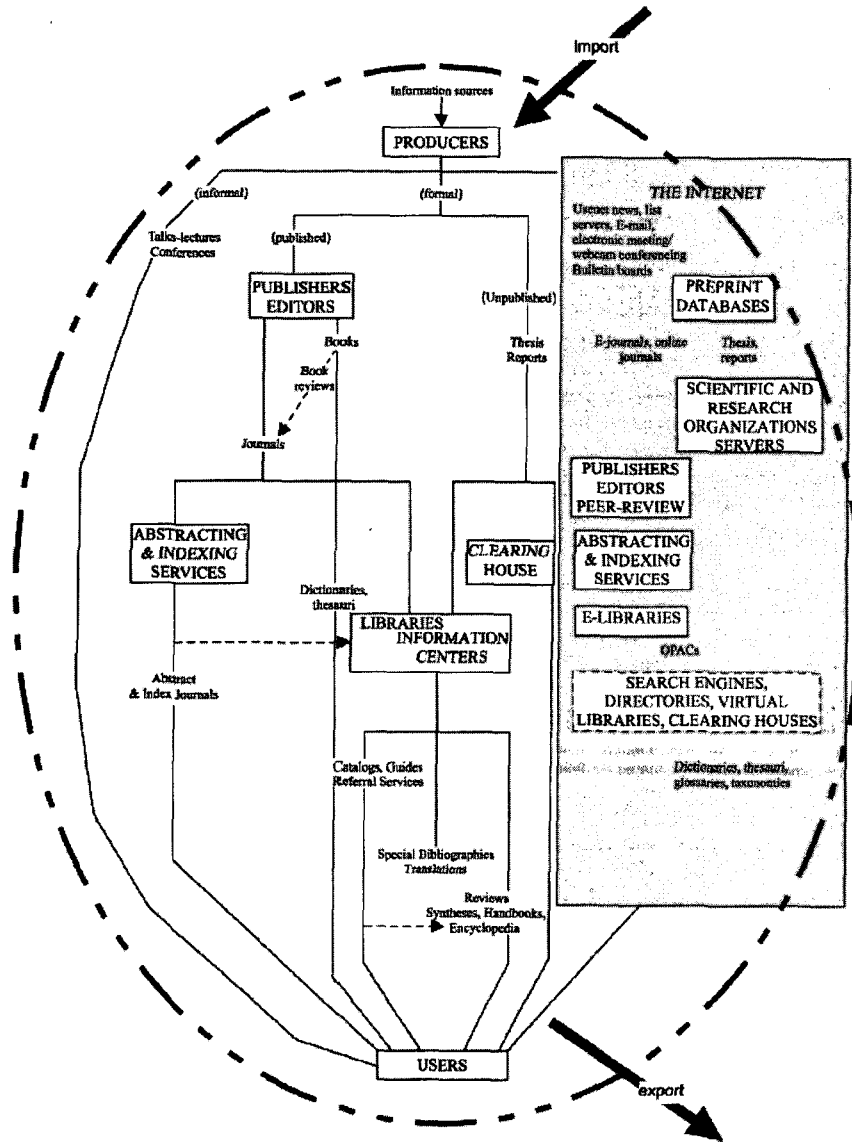
〈그림 1〉은 Hjørland(2003)가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모형으로 도메인들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학문영역이나 지식도메인을 나타내는 점선으로 된 타원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타원은 생물학적, 의학적 또는 법적인 담론 커뮤니티로 가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메인들은 일반적으로 겹치기도 하고 개방형 구조로서 예로 든 경우에는 생물

학과 의학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생의학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론 커뮤니티는 지식생산자, 이용자와 중개자가 구성원이 되고, 도메인은 사회에서 노동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 각 도메인 내부에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자, 연구보조자, 관리자, 사서/정보전문가처럼 일에 있어서 내적인 구분이 발달해 있고, 실무자들은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의 최종이용자가 된다.

모든 도메인이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고유한 구조를 갖는 것이 이 모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결국 문헌정보학에 대한 도메인 분석적 연구방법에서 핵심적인 요점은 담론 커뮤니티가 수단(tools), LSP, 개념, 의미, 정보 구조, 정보요구와 적합성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 연구방법은 온톨로지로 대표되는 컴퓨터 과학과 연계된 전문가 지식과 인공 지능의 관점에서 본 도메인 분석으로, 특정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찾아내고 조직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정보를 재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이다. 도메인분석은 시스템 개발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이용되는 방법이고, 이 시스템들의 개발과 유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메인 내에서 시스템들의 공통성과 변화성 모두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컴퓨터과학에서 도메인과 도메인분석의 개념은 문헌정보학의 도메인분석의 개념보다 그 폭이 좁지만, 관심영역에서는 분명히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용어학과 의미와 연관된 문제에서 연계되며, 시스템이나 서비스



〈그림 1〉 도메인분석을 위해서 수정된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모형

가 도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견해도 동일하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에서는 컴퓨터기반 시스템의 개발에만 한정하지 않고, 더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여러 학문영역과 사용자 계층을 이해하려는 광범위한 요구가

존재한다.

인공지능분야도 사회학적인 시각보다는 개인적인 시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지만, 문헌정보학의 목표는 인공지능의 목표와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에서는 다양한 지



식이론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이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까지 인공지능을 문헌정보학 연구와 도서관 실무에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주로 정보 검색을 위한 지식베이스 설계와 전문가 시스템을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인공지능 분야에 도입된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의 지식을 추상화하여 지식의 개념 구조 체계를 모형화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기존의 분류표나 시소러스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편 분류 체계와 시소러스에 관한 연구가 온톨로지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편 분류 체계를 특정 지식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 분류 체계로 수정하고 시소러스와 온톨로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11가지 방법들이 개별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도메인에 하나 이상의 접근법이 해당 도메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예술도메인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예술이라는 도메인을 선택했을 때, 도메인 연구는 여러 구성원들, 기관들과 커뮤니케이션 과정, 즉 예술가, 비평가, 박물관, 예술사학자, 학술적 문헌,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등이 연계된 특정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UNISIST 모형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구조는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견해에 달려있다. 그 사회에는 항상 예술은 무엇이며, 예술 도메인에서 인식론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있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예술 분야에서는 '도상학(iconography)<sup>9)</sup> 패러다임'과 '양식 패러다임' 같은 상이한 패러다임들이 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들은 예술 전시회를 계획하는 방식과 예술 문헌을 서술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연구자는 LC와 UDC와 같은 분류 체계 내에 존재하는 유력한 견해를 분석할 수 있다. 계량서지학, 정보검색, 적합성 평가 등과 같은 문헌정보학의 다른 모든 분야로 이러한 분석을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예술분야를 학문적으로 고찰한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패턴을 연구하고 여러 패러다임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연구자가 예술에 관한 정보원에 대한 안내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정리된 기준에 의한 지침서를 근거로 삼기를 희망하는 연구자에게는 이 인식론적 연구와 구성원들, 기관들에 관한 연구 모두가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요점은 예술에 대한 특정한 견해가 항상 모든 예술작품, 예술에 관한 모든 문서와 모든 예술정보시스템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관리하는 데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분석은 이런 업무

9) 예술작품으로 특정한 주제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법이다.

들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방법론적 원칙들을 제시하는 문헌정보학내의 연구 영역이다.

그러나 도메인분석은 여러 도메인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로 문헌정보학을 분해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는다. 문헌정보학에서 도메인을 탐구함으로써 일반적인 기법들과 원칙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UNISIST 모형 참조). 따라서 여러 도메인과 상이한 과정, 수준, 연구방법, 시스템의 종류와 같은 두 측면과 연계해서 문헌정보학을 조직해야 한다. 지식도메인들이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 다르고, 다른 점에서는 얼마나 유사한지를 연구하는 것은 단지 공허하고 추상적인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문헌정보학을 확립하는데 중요하다.

## 5. 도메인분석의 두 가지 핵심적인 관점

### 5.1 사회-인지적 관점(the socio-cognitive view)

도메인분석의 주요한 명제는 다음과 같다. 도메인분석의 출발점은 개인이 아니며 특히 개인들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및 심리학적 구성물(make-ups)은 더욱 더 아니며, 지식도메인이나 학문영역 또는 거래(trade)이다. 도메인 분석에서는 개인을 실무진, 학문분야, 사고 또는 담론 커뮤니티 등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문헌정보학을 인지과학의 한 분야 보다는 오히려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비록 도메인분석이 도메인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하고 개인에게는 중

요한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분석은 개인의 인지과정에 근거한 시각도 인정한다. 즉 도메인 분석이 도메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도메인 분석은 개인의 인지과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두며, 사회-인지적 관점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시각을 표현한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주로 생물학적 원칙들에 의해서 어린아이의 인지발달이 결정된다는 것이 기본 가설이다. 어린아이들이 언어, 기호 등을 학습할 때, 기호 의미와 표상들에 의해 인지과정이 점진적으로 증개되고, 이러한 기호 의미와 표상들은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그 후에 인지과정이 작용하는 방식을 재구성 한다. 그러한 표현과 기호체계가 외부적으로 먼저 발전하고, 이런 기호들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부분적으로는 사회와 도메인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 즉 타고난 기호(favor)로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음악을 선호하고 그래서 이들은 음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며, 어떤 사람들은 수학에 대한 재능이 있지만 다른 이들은 수학을 꺼린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에서 정보검색과 연계된 사람들의 적합성 기준을 논의할 때, 사람들의 기준은 주로 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지식도메인들에 존재하는 이론들이나 패러다임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Hjørland 200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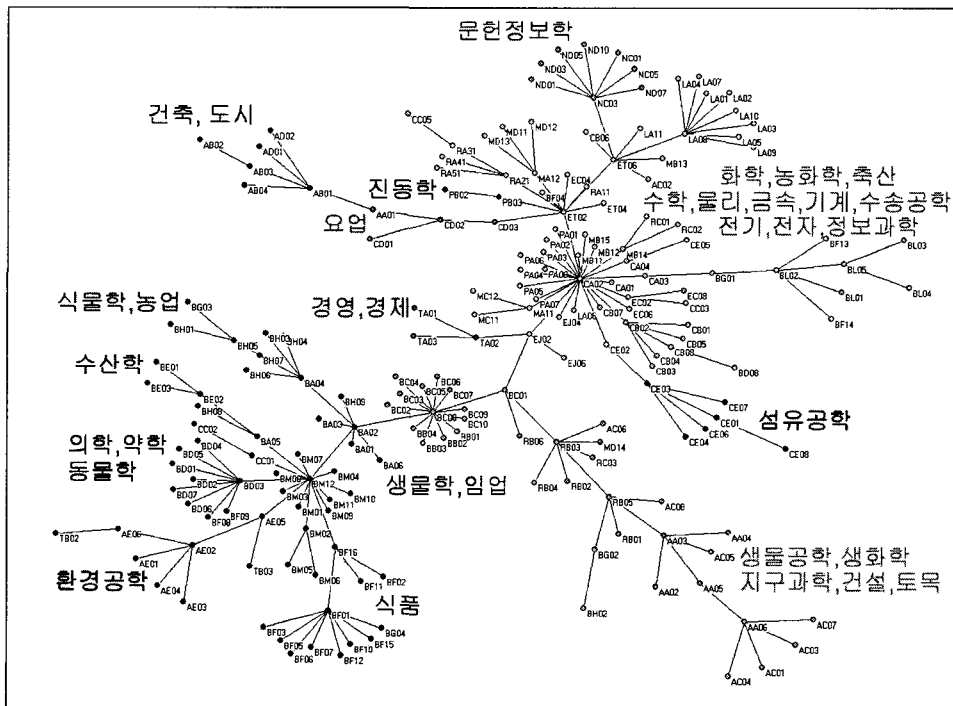
특정한 주제 즉 정신분석(schizophrenia)에 관한 문헌을 검색할 때, 적합성 기준은 탐색자들이 속해 있는 이론, 전통 또는 패러다임에 의해 좌우된다. 심리분석자는 심리분석의 관점에

서 정신분석을 바라 본 논문을, 인지주의자는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기술된 논문을 선호한다. 탐색자들의 관점에 따라 선호하는 학술지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적합성 기준은 개인이 성장한 학문 전통으로 말미암아 개인에게로 사회화된다.

위의 경우와 유사하게, 학술지를 사용해서 학문간의 관계를 분석한 실험은 <그림 2>와 같다(이재운 2005). 이 그림은 KISTI 해외 과학 기술분야 학술지를 단서로 하여 KISTI 표준분류표의 주제명표목간 유사성을 산출한 다음, 주제표목간 Pathfinder Network를 생성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과정에서 핵심은 KISTI 분류체계의 범주간 학술지 공유도를 통한 분류체계 분석이다. 이 분석은 각 범주에 논문이 할당

된 학술지가 서로 겹치는 정도를 말하고,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읽는 핵심 무대인 학술지가 상당수 겹치는 두 분야가 있다면, 둘 사이의 가깝다고 판단하고, 학문 커뮤니티간의 관계를 학술지에 근거해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 분야에 논문이 할당된 학술지의 논문 건수로 그 분야의 프로파일을 표현한 다음, 분야 프로파일간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새로운 도메인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인지적 견해와 전통적인 인지적 견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초기의 인지과학에서는 인지에 대해서 문화와 사회가 가지는 역할을 과소평가했지만 개인의 인지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간



<그림 2> 학술지에 의한 학문간의 관계

주되었다. 그러나 인지이론들의 중심이 상징적 표현과 의미론에서 옮겨가면서 실용적인 연구들이 부활했고, 이런 사회-인지적 이론은 연구 방향을 철저하게 바꾸어 놓았으며, 인간의 행동을 가장 기본적인 개체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견해는 문화적으로 생성된 기호와 표상의 내면화와 더불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미들이 인지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즉 지식의 형성은 커뮤니티와 그 구성원들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이며, 이 변증법은 언어로 증개되고 특정 분야의 역사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특정한 학문 커뮤니티에서 저술가들은 담론 전통의 일부이고, 또한 저술가들은 특정 학문 분야의 과거와 공유한 관심사들과 공유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뇌나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웨어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도메인분석은 대체로 이용자를 중요한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이용자를 상이한 문화, 다른 사회구조와 고유한 특징이 있는 지식도메인에 속한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정보 생산자들, 증개자들과 이용자들은 공통된 언어, 장르와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관례를 공유하는 지식공동체(communities) 내에서 다소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구성원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의미상의 간격이 존재한다.

## 5.2 실용적 사실주의 관점(pragmatic realism view)

Hjørland(2004a)는 문헌정보학과 도메인분

석은 '실용적 사실주의'라고 일컫는 견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정신과는 독립적인(mind-independent) 실재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주의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예를 들면, 산(mountains)은 인류 보다 먼저 존재했고 산은 인간이 산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사실을 안다거나, 우리의 지식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과학이 반드시 사실과 가깝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과 독립적인 실재가 존재하고, 이러한 주장이 문헌정보학과 다른 모든 학문에서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주의자의 관점이다.

실용적 사실주의는 다른 종류의 사실주의와는 다르다. 경험주의나 합리주의와 같은 근본주의에 근거한 순진한(naive) 사실주의는 아니다. 토마스 쿤(Thomas Kuhn 1970)은 실용적 사실주의를 연구하였고 더불어 이론과 패러다임들이 존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요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의로 구조를 자유롭게 고안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연은 임의의 개념을 모은 상자 속에 담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어떤 개념 집합으로도 결코 자연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학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실세계는 정상적인 형식이 아닌 인간의 개념화에 저항한다. 다시 설명하면 인간의 개념에 의해 실세계를 설명하는 구조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비록 다른 학자들이 반사실주의자로 인식하긴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토

마스 쿤의 견해는 실용적 사실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경험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sup>10)</sup> 그리고 사회구성주의와 반대되는 견해이다. 사회구성주의는 실용적 사실주의와 사회적 및 정치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망을 공유하지만, 전통적인 인식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헌정보학에서 실용적 사실주의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에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실용적 사실주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지식에 의해서 정보를 검색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검색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식의 가능성에 익숙한 경우와 익숙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인용색인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검색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연구할 때, 정보전문가는 검색에서 객관적인 검색수단과 연계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에 토대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지식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연구대상인 이용자들보다 정보전문가들이 그 가능성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용자들 보다 정보전문가들이 검색엔진, 인용색인, 시소러스, 통제어휘 등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수단들의 유용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보전문가들이 이용자들

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행태를 연구할 때, 위의 내용은 일종의 객관적인 지식모형의 토대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형은 정보전문가의 주관적인 견해에 근거를 두지만, 문헌정보학이 진보하려면 연구논문에서 이러한 모형들을 소개하고 논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기존의 지식체계는 항상 주관적인 지식이지만, 기존의 지식체계에 대한 특정한 대안이 다른 견해보다 더 낫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견해를 지지하는 논거를 고려하는 것이다.

실용적 사실주의는 문헌정보학에서 적합성(relevance)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암 치료제로 어떤 물질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의학연구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나 이용자에게 물어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용자의 생각보다 해당 주제 영역의 지식에 기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의 이용자들은 해당 주제영역의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보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주관적인 지식을 더 중요하게 반영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적합성 기준으로 적합성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의미에서 적합성을 이해해야 한다.

10) 지각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지식이 가장 확실한 지식이며, 실증주의자들의 전제가 문헌정보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통계학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증주의 이론에서는 연구는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며, 실증주의는 반사실주의이라고도 일컫는다. 또한 연구는 관찰 가능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실증주의는 행동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생명체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심리학적 현상들에 관한 모든 지식을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생명체의 예로 문헌정보학의 이용자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인지주의와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유사하고,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와 반대 개념인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이다.

그리고 정보조직영역과 관련해서도 도메인 분석은 유용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문헌정보학과 정보조직영역 내에서도 인식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주관주의자들은 과학적 지식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사서들 자신의 일반적 상식이 정보조직 시스템의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도메인 분석의 견해는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메인 분석에서는 과학적 주장과 사실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상이한 견해들을 검토하고 여러 지식 이론들과 사회적·문화적 편견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비판적인 이용자로 하여금 확립된 지식에 의문을 던지고 다른 대안을 찾게 하는 것이 도서관과 정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내용의 배경에는 문헌정보학 내에서 주제 지식을 간과하는 경향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논증에 관한 논의로 나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식론적 논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원칙적으로 하면 해당 주제영역의 담론의 일부이며,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상관없이 도달하려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문헌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이 참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용자의 판단과 상관없이 특정 문헌이 검색 목적에 적합할 수도 있다는 점이 사실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 6. 결론

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은 지식이고, 도메인 분석은 지식에 관한 견해에서 출발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본질은 개인의 사고에 의해 형성되는 개념과 그 표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생성하고 발전시켜서 전파하는 도메인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주제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사회-인식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활용하고 도메인지식을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정체성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도메인분석이 문헌정보학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메인이 갖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사회학적 차원은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세 차원을 개별적으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 차원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도메인의 본질적인 차원을 드러내게 된다.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고찰로부터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 11가지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수 분류체계와 시소러스 구축, 계량서지학 연구, 은톨로지 등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들의 토대를 형성해 온 전통적인 문헌정보학의 연구와 병행하여 발전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인 이용자 연구, 역사적 연구, 인식론적·비평적인 연구 등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들은 대단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문헌정보학의 연구 경향이 연구 대상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만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현상의 기원을 추적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연구 경향으로 나아가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제 게이트웨이 구축, 전문분야의 색인 및 검색, 문헌 및 장르에 대한 연구,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문헌구조와 서지기관에 관한 연구 등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들이 문헌정보학에서 정착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내놓게 된다면, 사회·인 지적 관점에서 문헌정보학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쳐서, 특히 정보이용행태, 적합성 기준, 정보조직영역에서 실용적 사실주

의의 전망과 주제 지식을 중요시 하는 흐름으로 문헌정보학의 철학적 기반과 연구 경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헌정보학을 진지하게 학문분야로 인정하려면, 문헌정보학 내에서 기본적인 이론들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철학은 단순히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 분야와 전문직의 현장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헌정보학 내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고찰하는 진지한 시도 중의 하나가 도메인분석이고,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논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태수. 2000.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 유영준. 2003. 『문헌정보학의 지식 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재윤. 2005. KISTI 과학기술문헌 서비스에의 자동분류 도입 방안 검토, KISTI 해외정보실 내부세미나.
- 정영미. 1997. 『지식구조론』. 서울: 도서관협회.
- Bates, M. J. 1987. "Information: the last variable." *Proceedings of the 50th Annual Meeting of the ASIS*, 24, Medford, NJ. 6-10.
- Budd, John M. 2001. Knowledge and Know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 Philosophical Framework. Lanham, MD: Scarecrow.
-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1968. New York: Marcel Dekker.
- Hjørland, Birger. 2004a. "Arguments for philosophical realis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Trends*, 52(3): 488-506.
- \_\_\_\_\_. 2004b. "Domain analysis: a socio-cognitive orient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online]. Feb/Mar [cited 2005.10.6].

- <[http://www.findarticles.com/p/articles/mi\\_qa3991/is\\_200402/ai\\_n9353769](http://www.findarticles.com/p/articles/mi_qa3991/is_200402/ai_n9353769)>.
- \_\_\_\_\_. 2004c. "Domain analysis in information science."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nd suppl. New York: Marcel Dekker, 129-135.
- \_\_\_\_\_. 2003. "Documents and the communication of scientific and scholarly information: revising and updating the UNISIST model." *Journal of Documentation*, 59(3): 278-320.
- \_\_\_\_\_. 2002a. "Domain analysis in information science: eleven approaches - traditional as well as innovative." *Journal of Documentation*, 58(4): 422-462.
- \_\_\_\_\_. 2002b. "Epistemology and the socio-cognitive perspective in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4): 257-270.
- Hjørland, Birger, and Hanne Albrechtsen. 1995. "Toward a new horizon in information science: domain-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6(6): 400-425.
- Hjørland, Birger, & Jenna Hartel. 2003. "Afterword: ontological, epistemological and sociological dimensions of domains." *Knowledge Organization*, 30(3/4): 239-245.
- Kuhn, Thoma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hn, Thomas. 1970. *Reflections on my Critics*. In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31-278.
- Saracevic, T. 1975. "Relevance: a review of and a framework for the thinking on the notion in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6: 321-343.
- Shera, Jesse. 1951. *Classification as the Basis of Bibliographic Organ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1-99.
- Soergel, D. 1999. "The rise of ontologies or the reinvention of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s*, 50(12): 1119-1120.
- WordNet 2.1. [cited 2006.1.4].  
<<http://wordnet.princeton.edu/perl/webwn>>